

## 2015년 제4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실무협의체 회의결과보고

- 협의체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위원 변경사항 등 실무분과별 운영사항에 대한 공유, 제6기 실무협의체 확대 구성(안),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비전수립 의견수렴을 위한 『2015년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임.

### 개 요

- 일 시 : 2015. 11. 18(수) 11:00 ~ 12: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2층)
- 참석인원 :
  - ▶ 실무협의체 위원 : 총 25명중 16명 참석(60%)
    - 참석위원 : 16명(민 10명, 공 6명)  
박은순, 임숙자, 임유정, 송경순, 김상두, 강미정, 호민우, 김영란, 조용준, 이종성, 김유라, 최미숙, 김금순, 이인숙, 권춘규, 황호성
    - 미참석위원 : 9명(민 3명, 공 6명)  
김분홍, 이계원, 하경희, 김상기, 김재현, 송영진, 옥인숙, 박환식, 홍명숙
  - ▶ 사회복지과 : 김충영
  - ▶ 협의체사무국 : 박창재, 임복희, 허윤범, 이주미

##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10월~11월)
- 위원변동 사항 등

### 2) 실무분과별 운영사항

### 3) 논의사항

- 제6기 실무협의체 구성
-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비전수립 의견수렴

## 회의결과

### I. 보고사항

#### ①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10월~11월)

#### ○ 논의내용

위원명	내 용
김금순 위원	12월 3일 꿈쟁이학교 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박창재 사무국장	꿈쟁이학교 관계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차 MOU가 올해 마지막임. 그래서 삼성전자, 시, 수지연, 협의체 관계자가 모여서 꿈쟁이학교 운영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3차 MOU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가 개입했던 부분이 꿈쟁이학교 안정화를 위해 협의체가 함께했던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체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계속 꿈쟁이학교에 참여할 것인가와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꿈쟁이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김금순 위원	3차 MOU체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가
박창재 사무국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안 나오지 않았음. 첫 번째 삼성에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것이며 수원시와 수지연의 MOU관계, 수지연의 운영방법,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사실 현재 수지연에서 꿈쟁이학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3차 MOU에서는 협의체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빠지는 방안까지 모색을 하고 있음.

위원명	내 용
황호성 팀장	2015년도의 사업의 종료되고 3차 MOU에 대해서 협의체의 역할이라던가 참여의 범위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공유해야 할 것이며 잘 정리해달라. 사실 그 동안 분과와 무관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음. 이러한 부분이 협의체가 전담하거나 손을 떼는 쪽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와 같이 누군가는 하는데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협의체 사업이라는 정도로 인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용 공유도 잘 안될것임. 이런 부분이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송경순 위원	지역아동센터장들도 연합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소통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궁금함
김금순 위원	현재 35개 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6년차 되면서 3차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지금껏 역할을 잘 이끌어 오기는 했으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지연 입장에서도 삼성만 바라보고 가야되는 상황인건지 다른 자원을 찾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성과보고회를 통해 어느정도 정리될 것으로 생각함.
박창재 사무국장	성과보고회 전에 사무국 내부에서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연합회하고도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정리를 할 것임.

## ② 위원 변동사항

### ○ 실무분과

- 위·해측수 : 위측 4명 / 해측 6명
- 변동사유 : 업무변동 및 기관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 신규위원 추천

## II. 실무분과별 운영사항

### ○ 2015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내용 공유

- 각 분과별 특이사항 공유 : 분과장

### Ⅲ. 논의사항

#### ① 제6기 실무협의체 확대 구성(안)

##### ○ 논의결과 : 원안대로 추진

##### ○ 주요내용

###### □ 실무협의체 구성 근거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5조

###### □ 제6기 구성계획

##### ○ 인 원 : 40명 이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임 기 : 2년 (2015.11.30 ~ 2017.11.29)

※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 구성방법

- 공공분야 : 사회복지·보건의료·주거·교육 업무 팀장

※ 각 업무 팀장은 해당분과의 공공 분과위원장으로 당연직

- 민간분야 : 각 분과에서 분과위원 중 호선하여 민간 분과위원장 선출

※ 10월 실무분과 회의시 선출, 위촉 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 전문가분야

- 학계 2인 및 시민단체 1인은 임원회의에서 별도 추천

- 일자리(고용), 다문화, 문화환경, 인권분야는 공고 후 임원회의(서면)를 통해 추천

## ○ 논의내용

위원명	내 용
박은순 위원장	- 사회보장급여법 자체가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부분이어 이후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보완하거나 할 것임. 환경, 문화 등 큰 구조안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됨. 본 안대로 우선 구성하고 보완하는 걸로 하겠음. 현재 분과장은 다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 영역은 사무국에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박창재 사무국장	- 나머지 분야는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 할 것임.

## ②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비전 의견 수렴

### ○ 과정설명 : 임숙자 부위원장

### ○ 논의결과 : 의견없음

### ○ 주요내용

####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비전 및 미션

사회적 비전(Outward Vision)	사회적 미션(Outward Mission)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 공동체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조직변화 비전(Inward Vision)	조직실행 미션(Outward Mission)
복지 공동체라는 본질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시민의 동반자	시민의 본질적인 필요를 민감하게 듣고 뜨겁게 반응하기

## ○ 논의내용

위원명	내 용
박은순 위원장	- 5차까지 진행되었고 마지막 6차 회의를 남기고 있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협의체 활동도 했고 시민의 의견수렴도 했으나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개인과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던져 볼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음. 함께 진행했던 참여자들과 사무국이 끈질기게 함께하여 오늘 이시간까지 왔음. 이후 우리가 가져가야할 비전, 미션이 도출될 텐데 보면서 어떻게 이런 비전, 미션을 끄집어 내었는지 놀라움.
박창재 사무국장	- 사회적 비전과 조직변화 비전이 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그 동안

위원명	내 용
	<p>미션과 비전은 우리만의 미션과 비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수원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션과 비전이었느냐,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션과 비전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었음. 그것이 사회적 비전, 미션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직변화 비전과 미션임.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비전, 미션이 나갈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조직변화 비전, 미션이 사용될 것임. 시간 관계가 SNS와 메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임.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감한다’ 또는 ‘어렵다’ 등의 의견이라도 주면 참고하여 시민이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고 같이 울림이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함. 의견을 많이 달라.</p>

## 참고자료

- 1) 관련사진
- 2) 회의록
- 3) 녹취록

[참고자료 1] 관련사진

2015년 제4차 실무협의체회의(2015.11.18.)



[참고자료 3] 녹취록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5년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 녹취록

-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11: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2층)
- 참석자 : 16명 / 25명

### 1. 개회선언

### 2. 위원장님 인사말씀

### 3. 보고사항

#### 1)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박창재 사무국장 보고
- 의견

김금순 : 12월 3일 꿈쟁이학교 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박창재 : 꿈쟁이학교 관계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차 MOU가 올해 마지막임. 그래서 삼성전자, 시, 수지연, 협의체 관계자가 모여서 꿈쟁이학교 운영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3차 MOU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가 개입했던 부분이 꿈쟁이학교 안정화를 위해 협의체가 함께했던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체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계속 꿈쟁이학교에 참여할 것인가와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꿈쟁이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김금순 : 3차 MOU체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가

박창재 : 아직 구체적인 방안안 나오지 않았음. 첫 번째 삼성에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것이며 수원시와 수지연의 MOU관계, 수지연의 운영방법,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사실 현재 수지연에서 꿈쟁이학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3차 MOU에서는 협의체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빠지는 방안까지 모색을 하고 있음.

황호성 : 2015년도의 사업의 종료되고 3차 MOU에 대해서 협의체의 역할이라던가 참여의 범위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공유해야 할것이며 잘 정리해달라. 사실 그 동안 분과와 무관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음. 이러한 부분이 협의체가 전담하거나 손을 떼는 쪽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와 같이 누군가는 하는데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협의체 사업이라는 정도로 인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용 공유도 잘 안될것임. 이런 부분이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공

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송경순 : 지역아동센터장들도 연합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소통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궁금함

김금순 : 35개 센터가 참여하고 있음. 6년차 되면서 3차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삼성이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껏 역할을 잘 이끌어 오기는 했으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진행해 왔음.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지연 입장에서도 삼성만 바라보고 가야되는 상황인건지 다른 자원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고 현재까지 성과를 봤을 때 손을 놓기는 아깝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음. 성과보고회를 통해 어느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함. 수지연에서도 연합회가 어느정도 관여를 할 것인지 주체적으로 같것이지에 대해 워낙 규모도 커지도 하니 어떠한 부분에서는 다른쪽도 영입해서 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

박창재 : 성과보고회 전에 사무국 내부에서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연합회하고도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정리를 할 것임.

박은순 : 이 사업 처음부터 논의가 많이 되었음. 민관산 이름으로 협의체가 같이 같것인지와 중도 삼성수원꿈쟁이학교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부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음. 삼성이 주장하여 삼성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들어가게 된 것. 그렇다면 삼성이 앞으로 들어가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삼성수원꿈쟁이학교를 다른 기업체가 하겠는가. 과거 사업 타이틀을 정할 때 의견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막상 수원시와 바로 매칭을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체가 중간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협의체 자체사업을 보면 민간 또는 공공에서 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일환임. 이후 종료시기에는 지난해에도 실무협의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5년 2차 MOU종료와 맞춰 물론 삼성이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지만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했던 협의체와 수지연 관계자들의 의견 또 아이들의 성과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오늘 나온 의견들을 사무국에서 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같것인지 함께 결정할 것임.

## 2) 실무분과별 운영사항 공유

- 실무분과장 보고
- 회의자료 참조

## 4. 논의사항

### 1) 제6기 실무협의체 확대 구성안

- 제안설명 : 박창재 사무국장
- 의견



박은순 : 사회보장급여법 자체가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부분이어 이후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보완하거나 할 것임. 환경, 문화 등 큰 구조안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됨. 본 안대로 우선 구성하고 보완하는 걸로 하겠음. 현재 분과장은 다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 영역은 사무국에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박창재 : 나머지 분야는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 할 것임.

박은순 : 원안대로 진행하겠음

## 2)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비전 의견수렴

- 제안설명 : 임숙자 부위원장

- 의견

박은순 : 5차까지 진행되었고 마지막 6차 회의를 남기고 있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협의체 활동도 했고 시민의 의견수렴도 했으나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개인과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던져 볼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음. 함께 진행했던 참여자들과 사무국이 끈질기게 함께하여 오늘 이시간까지 왔음. 이후 우리가 가져가야할 비전, 미션이 도출될 텐데 보면서 어떻게 이런 비전, 미션을 끄집어 내었는지 놀라움. 멋지죠?

박창재 : 사회적 비전과 조직변화 비전이 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그 동안 미션과 비전은 우리만의 미션과 비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수원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션과 비전이었느냐,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션과 비전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었음. 그것이 사회적 비전, 미션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직변화 비전과 미션임.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비전, 미션이 나갈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조직변화 비전, 미션이 사용될 것임. 시간 관계가 SNS와 메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임.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감한다’ 또는 ‘어렵다’ 등의 의견이라도 주면 참고하여 시민이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고 같이 울림이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함. 의견을 많이 달라.

전 체 : 다른의견 없음